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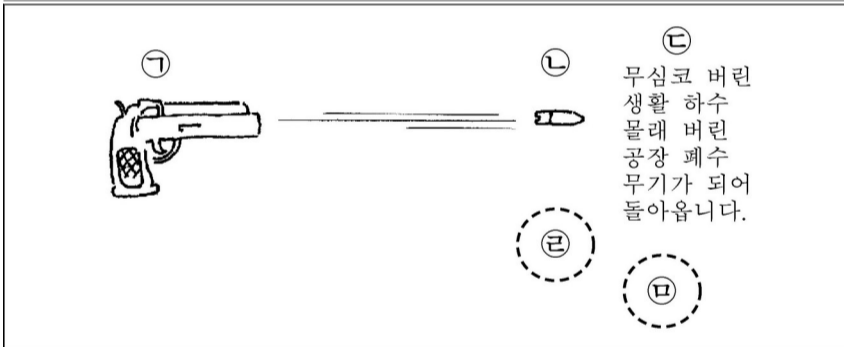
2004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언어 영역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 답안지에 수험 번호 , 응시 계열 ,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 ' 에 따라 표기하시오 .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 1 점과 3 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 점씩입니다 .

1 번부터 6 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를 바랍니다 . 듣는 내용은 한번만 방송됩니다 .

얕은 것은?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 번과 6 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얕은 내용은?

이제 들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 7 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를 바랍니다 .

언어 영역

않은 것은?

않은 것은? [3 점]

않은 것은?

가장 적절한 것은?

언어영역

지금

아가씨 가방에서 손수건 떨어졌어요.

제가

할아버지 안내해 드릴까요?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아버지 어디 가셨니?

저 내리는데,

아주머니께서 여기 앉으시죠.

내일 쉬는 날인데,

형은 뭐 하실 거예요?

[14~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암갈색으로 물든 몸을 움직여
두어 바퀴 원을 그리며 지는 그대

두어 바퀴 둥글게 원을 그리며
오늘은 암갈색으로 지고 있는 그대

오늘은 암갈색으로 지고 있는 낙엽
다시 볼 수 있을까, 초록의 앞으로 빛날 날을……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초록으로 숨 쉬던 어제가 그리운지
오늘은 저렇게 무거운 걸음으로 지고 있네

다시 초록으로 숨 쉴 그 날을 위해
오늘은 묵묵히 지고 있나 보다

그는 몰랐다.

- 신경림, 갈대 -

(나)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 축(???)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해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다른 것은?

언어영역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버와 마주 앉아 대구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여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윤동주, 또 다른 고향(초?) -

1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또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려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너

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초?)과 「라이벨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

* 때글은 : 때에 전.

(가)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백?)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둠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않은 것은?

않은 것은?

않은 것은? [3 점]

언어영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와 같이 얼마간 표현을 바꾸었다.

위의 세 규정은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다만 1933 년과 1988 년의 규정에서는 '대체로'와 '원칙으
로 한다'는 표현으로 서울말이 그대로 전부, 또는 서울말만
표준어가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중류사회', '교양 있는 사람들'이란 조건은 ㉠

사회
방언을 의식하여 궁중과 같은 특수 사회나 하층 계급의 말은 서울말일지라도
표준어의 대열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제약 조건을 단 것이다.

그런데 표준어에 대해 위와 같이 규정을 하지 않았어도 한국어의
표준어가 서울말이 아닌, 더 정확히 교양 있는 사람들의 서울말이 아닌
다른 지역(및 다른 계층)의 말이 표준어가 되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을
것이다. 서울은 600 년 동안이나 한국의 행정적,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였다. 조선조가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에는 개성이 475 년
동안 고려의 수도였는데, 개성과 서울의 거리는 불과 73km로 두 도시는
언어적으로 동일한 방언권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서울말이 한국어의
표준어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된 것은 까마득한 옛날의 일이었을
것이다.

[19~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말에서 신경을 써서 가꾸고 다듬어야 할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반드시 강조해 두고 싶은 것은 규범을 지키는
언어생활이다.

우리는 우리말 사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어 규정, 맞춤법 규정, 표준 발음 규정, 외래어 표기법 같은 국가적
차원의 규범을 만들어 놓고 언어생활에서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나는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에 몇 번 머무를 기회가 있었는데, 철자를 잘못
적는 일은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다. 이에 반해 우리의 실정은 어떠한가?
거리에 나가 거닐면서 각종 상업의 간판, 광고, 표지 등을 잠깐만
살펴보더라도, 규범을 지키지 않은 사례들을 한두 건은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이다.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조차 표준어 규정이나
표준 발음에 어긋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거나, 심지어 ㉠

20. ㉠을 논지로 하여 ㉡을 반박하는 글을 쓰려고 할 때, 제시할 수 있는
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점]

영어 철자법에는 자신이 있는데 한글 맞춤
법은 어려워서 영 자신이 없다고 무슨 자랑거리라도 되는 듯
이 이야기하는 지식인을 본 적도 있다. 사실, ㉠
영어의 철자
는 너무나도 불규칙해서 송두리째 암기하지 않으면 안 된
다. 이에 비하면, 우리말의 맞춤법은 영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쉽다. 그런데도 우리말의 맞춤법이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말을 소홀하게 생각해 온 데서 비롯된 결과가 아니겠는가?

(나) 현재 한국은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고 있다. 규정상으로 서울말이
표준어로 인정된 것은 1912 년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에서 "경성어를
표준으로 함."과 같이 선포한 때다. 이것이 1933 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처럼 좀 더 정밀하게 규정되었고, 1988 년 '표준어 규정'에서는 다시

언어영역



[24~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어찌 문장에만 해당하리오?

일체의 갖가지 일이 모두 그러하지요. 화담(?치) 선생이 외출하였다가 ㉠

집을 잃고 길에서 우는 자를 만났습니다. 화담 선생이 "너는 어째서 울고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저는 다섯 살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아, 지금 20년이 흘렀습니다. 아침에 밖에 나왔다가 갑자기 천지만물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려니, 눈두렁 발두렁 갈림길은 많고, 집집마다 문은 똑같아서 어느 집이 우리 집인지 분간이 되지 않아 울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

생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너에게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 주마.

돌아가는 비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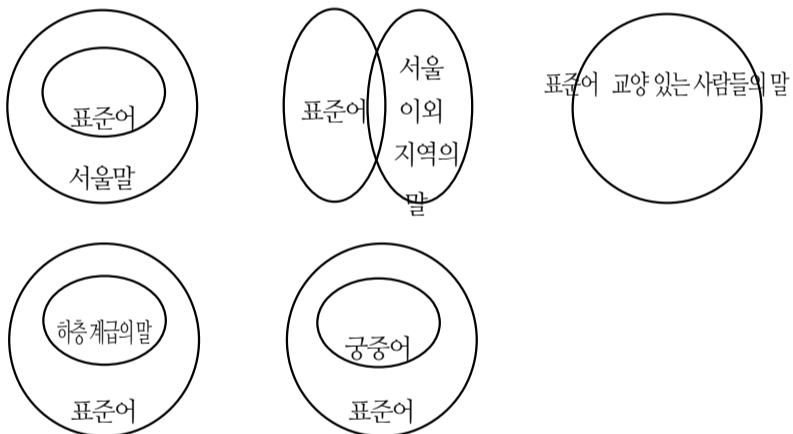
- 박지원, 창애(??)에게 -

(나) 진실한 기쁨과 진실한 슬픔이 진실한 시를 만든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우는데, 울기를 그치면 웃는다. 여기에는 어떠한 허위도 없는데, 그 까닭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시의 근본이다. 동자가 두세 살이 되어서는, 밥을 많이 주면 웃고, 밥을 적게 주면 운다. 느끼는 대로 기쁨과 슬픔이 일어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 이것이 시의 기미(??)*이다. 아이가 성장해서는, 귀인(??)에게 아첨하여 환심 사기에 애쓰고,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도 슬픈 척 조문한다. 이것이 시의 허위(??)이다.

천하에는 슬픔이나 기쁨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시를 짓지 못할 사람이 없으면만, 오히려 그러한 사람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부형(??)과 스승이 그를 올바르게 인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가 거짓된 시를 지을 리가 있겠는가? 아이는 마음으로는 깨달았으나 입으로는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손으로는 썼으나 마음으로는 왜 그런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을 부형과 스승에게 질문하여 판단해 주기를 요청하면, 그들은 그 자체가 옛사람과 비슷하지 않게 될 것만을 염려한다. 억지로 옛사람을 모방한다고 해서 옛사람이 되지 않음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참으로 옛사람을 모르는 자

지우며 "이것은 요즘 것이고, 옛날 것이 아니다."라 말하고, 진부하고 화려한 글은 비점(??)을 치며 "이것은 옛날 것이고, 요즘 것이 아니다."라 말

것은?



어려운 것은?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을 모두 고르면?

언어영역

끝어다가 과거(i Ca) 문장을 익히게 한다. 그 뒤로 자제들은 저들에게 빠지니, 시가 결국 슬픔이나 기쁨과는 무관하게 된다.

- 이덕무, 선서재시집(?????)의 서문 -

* 기미 : 일이 되어 가는 분위기.

* 비점 : 시문 등을 비평하여 잘된 곳에 찍는 점.

끝어다가 편리하게 쓰고 있다.

빠지면 스스로 그 잘못을 깨닫기 어렵다.

24. (가)와 (나)의 공통적인 글쓰기 방식은?

두드렸다.

돌아가는 소리가 경쾌하게 나기 시작했다.

지우려고 머리를 흔들었다.

언어영역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 길 언덕길을 어머니의 상여와 함께 꼬부라져 돌아갔다.

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푸른 하늘빛에 호져 때 없이 그 길을 넘어 강가로 내려갔다. 노을에 함복 자줏빛으로 젖어서 돌아오곤 했다.

그 강가에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다녀갔다. 까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간 다음에는 누런 모래둔과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서 몹서리쳤다. ㉠

그런 날은 항용 감기를 만나서 돌아와 앓았다.

할아버지도 언제 난지를 모른다는 마을 밖 그 낡은 버드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가 돌아올 것만 같아 멍하니 기다려 본다. 그러면 어느 새 어둠이 기어 와서 내 뺨의 얼룩을 씻어 준다.

- 김기림, 길 -

(나) 서울에 와서 나는 문학에 눈을 떴다. 별로 읽은 책도 없고, 읽었다 해도 제대로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작가는 특수한 인간처럼 우러러보였다.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하나하나의 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석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작은 작가가 되고 싶었다. 내가 시인이 된다면 당장 죽어도 한이 없을 것처럼 여겨졌다. 보들레르나 말라르메와 같은 시를 쓸 수만 있다면, 훨훨런처럼 방황하다 미쳐 죽어도 상관없다고 믿었다. 어떤 직업에도 구애됨이 없이 작품을 내서 인세(?)로 살 수 있는 삶이 가장 부러웠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화려했던 사르트르가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사회와 거의 단절하고 사는 괴벽(X?)스러운 켈러 같은 작가의 생활이 더 멋있어 보이기도 했다.

사막 같은 길을 나서기로 결정했다.

시골을 떠나 삭막한 서울의 뒷거리를 방황하던 나는, 어느덧 소르본 대학의 낯선 거리를 5년 동안이나 외롭게 서성거리다. 파리의 좁은 길로 로스앤젤레스의 황량한 길로 연결되고, 그 길은 다시 보스턴의 각박한 꼬부랑길로 통했다. 이처럼 나는 삶의 길을 찾아 30세가 넘어 40이 가깝도록 다시 학생 생활을 했고, 이제 60이 넘은 지금까지도 학교의 테두리 속에서 서성거리고 있다.

- 박이문, 나의 길, 나의 삶 -

앓은 것은?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용은 다른 예술과 마찬가지로 반응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외향적 활동이다. 즉 무용수는 관객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전달하고, 경험한 영감을 함께 느낄 생각으로 작품을 창조한다.

이러한 ㉠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무용수는 무대 위에서 관객에게 자신이 창조한 신체의 동작을 보여준다. 동작에는 반드시 정서적 의미와 삶의 경험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삶의 경험이 사실적으로 재현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무용수가 이별의 아픔을 표현한다고 할 때, 그는 손을 흔들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상상의 대상을 포옹하는 등의 동작을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는다. 다만 추상화된 몸짓의 형태로 보여줄 뿐이다.

무용수는 관객이 단순한 관객의 입장에서 벗어나 그들 앞에 펼쳐지는 동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근육 조직을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함께 춤을 추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처음 무용수 자신을 움직였던 정서적 연상을 관객에게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관객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만이 무용수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그는 어떤 대상에 대해 관객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느낌을 바꾸고 경험을 확대시키며, 습관적 반응으로부터 관객이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리하여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경험을 느낄 수 있게 한다.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용수는 대부분 동작을 활용하겠지만 무대 배경, 음악 등 관객들의 정서적 연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들도 함께 활용한다.

이러한 무용수의 기대와 노력에 관객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예술 작품을 접할 때 대부분의 관객들은 작품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마련이다.

언어영역

과거의 미적 경험이나 지식, 작가와 작품에 대한 정보 등을 통해 그 작품은 어떠한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용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상이 작품 감상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관객이 무용수의 동작 자체에 몰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용을 감상하면서 어떤 한 부분, 예를 들어 무용수의 팔 동작이 그리는 도형이나 배경이 되는 음악에만 관심을 갖는 관객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관객은 시각이나 청각과 같은 감각 기관을 사용하고 있지만, 온전하게 무용을 보고 있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무용을 온전하게 볼 수 있을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신이 무용수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농부가 관한 짧은 이야기를 참조할 만하다. 농부가 말을 잃어버렸다. ㉠ 그 결과 말을 찾을 수 있었다. 이 농부와 같은 방법을 쓴다면 관객은 반드시 무용수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무용에 접근할 때 비로소 무용을 예술로서 바르게 지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없는 것은?

않은 것은? [1 점]

먼 것은?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내 님물 그리△·와 우니다니
산(?) 껍ㄷㅊㅇ새 난 이숫ㅎ·요ㅇ | 다
학녀시며 거츠르신 ㄷ·ㄹ 아으
㉡

잔월효성(???)이 아ㄹ·시리ㅇ | 다

턱시라도 님은 한ㄷ ㅊ 녀져라 아으
벼기더시니* 뷔뻬시니ㅇ | 사가
과(vi)도 허믈도 천만(?) 껍소ㅇ | 다
ㅁ·ㄹㅎ마리신타*
ㅅ·ㄹ웃븐더* 아으
녀데 짜ㄹ·ㄹㅎ·마니ㅈ·시씨ㄹㄹ 카 ㅈ | ㅅ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 정서, 정과정(?·?) -

* 벼기더시니 : 우기던 사람이.

* ㅁ ㄹㅎ마리신타 : 못 사람의 험뜯는 말이로다.

* ㅅ ㄹ웃븐더 : 슬프구나.

(나)

어이 못 오던가 무삼 일로 못 오던가

[A] [너 오는 길에 무쇠로 ㉢

성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귀를 놓고 그 안에 너를 필자형(???)으로 결박하여 넣고 쌍배목(???)^{*} 결쇠에 금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잠가 있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더냐

한 해도 열두 달이오 한 달 서른 날에 ㉣

날 와 볼 하루
없으랴

언어영역

- 작자 미상의 시조 -

* 쌍배목 : 쌍으로 된 문고리를 거는 쇠.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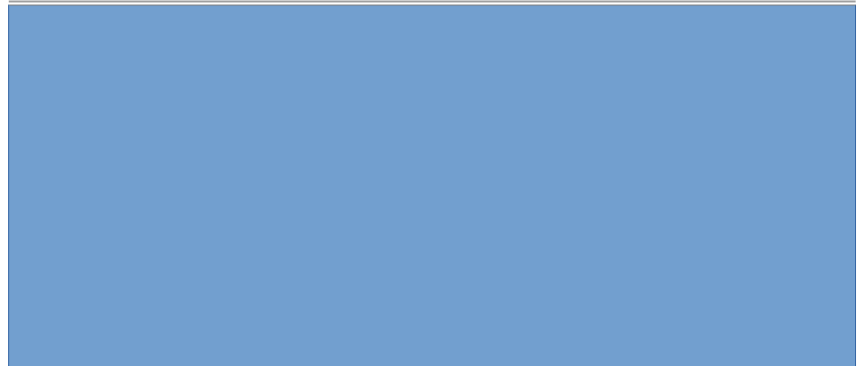
의복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 난다
 남방염천(⑩???) 찌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
 땀이 배고 때 오르니 굴뚝 막는 덕석인가
 덩고 검기 다 버려도 내음새는 어찌하리
 어와 내 일이야 가련이도 되었고나
 손잡고 반기는 집 내 아니 가읍더니
 등 밀어 내치는 집 구차하게 빌어 있어
 옥식진찬(???)* 어디 가고 맥반염장(???)* 되었으며
 금의화식(ㄹ???)* 어디 가고 현순백결(□□?)* 되었는고
 이 몸이 살았는가 죽어서 귀신인가
 말하니 살았는가 모양은 귀신일다
 한숨 끝에 눈물 나고 눈물 끝에 어이없어
 도로혀 웃음 나니 미친 사람 되겠구나
 어와 보리가을 맥풍(??)이 서늘하다
 앞산 뒷산에 황금을 펼쳤으니
 지계를 벗어놓고 앞 산을 굽어보며
 ㉞

40. (나)의 [A]의 시상 전개 방식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가장 적절한 것은?

한가히 베는 농부 문노라 저 농부야

밥 위에 보리 단술 몇 그릇 먹었으나
 청풍에 취한 얼굴 깨본들 무엇하리
 연년(ㄹㄹ)이 풍년 드니 해마다 보리 베어
 마당에 두드리고 용정(□?)*에 쓸어내니
 일본(??)은 밥쌀하고 일본(??)은 술쌀하여
 밥 먹어 배부르고 술 먹어 취한 후에
 함포고복(??u?)하고 격양가(*?)를 부르는 양
 농가의 좋은 흥미 저런 줄 알았다면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에 힘쓸 것을
 ㉞

않은 것은?
 [3 점]



백운(??)이 즐기는 줄 청운(??)이 알 양이면
 꽃 탐하는 별나비 그물에 걸렸으랴

- 안조원, 만연사(???) -

* 옥식진찬, 금의화식 : 좋은 음식과 의복.
 * 맥반염장, 현순백결 : 빈약한 음식과 누더기 옷.
 * 용정 : 곡식을 찜음.

않은 것은?

언어영역

[43~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방울재 허칠복(???)이가 고향을 떠난 지 삼 년 만에 미쳐서 돌아와 징을 두들기며, 땀을 막은 뒤통에서 밀려드는 땀시땀들을 쫓아 댔다.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징을 두들기는 칠복이의 모습은 나무탈을 쓴 도깨비 같다고들 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고향을 잃은 서러움, 아내를 빼앗긴 원한 때문이라고들 했다.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고향에 여섯 살 난 딸아이를 업고 불쑥 바람처럼 나타난 그는, 물에 잠겨 버린 지 삼 년째가 되는 방울재 뒷동산 각시바위에 땀물같이 앉아서, 목이 터져라고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대는가 하면, 혼자서 고개를 끄덕거리며 오순도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중얼거리다가도, 불쑥 고개를 쳐들어 하늘을 찢어 보고, 창자가 등뼈에 달라붙도록 큰 소리로 웃어 대고, 느닷없이

징을 두들기며 정중정중 도깨비춤을 추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의 성질이 염병을 앓아 귀머거리가 된 사람처럼 물렁해지고, 바보처럼 느물느물해진 거였다. 황소같이 힘이 세고 성깔이 왁살스럽던 그는, 도깨비 춤추듯 징을 두들다가도 방울재 사람들이 쫓아와서 한마디만 질러 대도 슬그머니 징채를 감추고 목을 움츠리는 거였다.

(중략)

"자네 정신 말짱히니까 허는 소리네만 좋은 얼굴로 헤어지세. 지발 부탁이니 지금 떠나도록 하여."

강촌 영감이 볼멘소리로, 그러나 약간은 사정조로 말하고 나서 칠복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일으키려고 했다.

"넌 아침 떠나라 하고 싶네만, 정은 단칼에 자르는 거이 좋은거."

칠복이는 아이를 업고 천천히 일어서서 희끄무레한 램프 불빛에 비취 보이는 침울하게 가라앉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가슴 속 깊이깊이 새기며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금방 눈물이 소나기처럼 주르륵 쏟아질 것만 같았다.

"땡 서둘러 나가면 대처 나가는 버스를 탈 꺼여!"

강촌 영감이 앞서 술청을 나가며 하는 말이다. 강촌 영감을 따라 칠복이가 고개를 떨구고 나갔고, 뒤이어 봉구와 덕칠이, 팔만이 차례로 몸을 움직였다.

봉구네 주막에서 나온 그들은 칠복이를 앞세우고 미루나무가 두 줄로 가지런히 비를 맞고 늘어서 있는 자갈길 구신작로를 향해 어둠 속을 걸었다. 그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칠복이의 등에 업힌 그의 딸아이가 켈록켈록 기침을 하자, 바짝 뒤를 따르던 봉구가 잠바를 벗어 덮어씌워 주었다.

빗방울은 점점 굵어졌고 호수를 훑고 온 물에 젖은 가을 바람에 으스스 몸이 떨렸다.

이따금씩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들이 헤드라이트로 녹녹한 어둠의 이 구석 저 구석을 쿡쿡 쭈셔 대며 바람처럼 내달았다. 자동차의

불빛이 길게 어둠을 가를 때마다 칠복이를 앞세우고 걷는 방울재 사람들의 가슴이 마치 총을 맞는 것만큼이나 섬찝섬찝했다.

신작로에 당도해서 조금 기다리자 읍으로 들어가는 헌터뱅크 버스가 왔으며, 그들은 서둘러 차를 세우고 칠복이를 밀어넣었다.

"징헌 고향 다시는 오지 말어."

봉구가 천 원짜리 두 장을 칠복이의 호주머니에 푹 쑤셔넣어 주며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칠복이가 무슨 말인가 하는 것 같았으나 부르릉 버스가 굴러가는 바람에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버스가 어둠 속에 묻히고 자동차 불빛이 보이지 않게 되어서야 말없이 돌아섰다.

한사코 가기 싫다는 칠복이 부녀를 억지로 버스에 태워 쫓아 보낸 그날 밤, 방울재 사람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후두둑후두둑 빗방울이 굵어지고 땅껍질 벗겨 가는 소리가 드

세어질 무렵, 봉구는 잠결에 아슴푸레하게 들려 오는 징소리에 퍼뜩 놀라 일어나 앉았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징소리당가?"

그는 마른 기침을 토해 내고 빠그덕 방문을 열어, 송곳 하나 박을 틈도 없이 짹 들어찬 어둠의 여기저기를 쑤셔여 보았다. 어둠 속 어디선가 딸을 업은 칠복이가 휘주근하게 비에 젖은 채 바보처럼 벌쭈벌쭈 웃으면서 불쑥 나타날 것만 같았다.

그는 문을 안으로 걸어잡고 자리에 들어 아내의 툭상스러운 허리를 꼭 껴안고 잠을 청하려고 했으나, 땅껍질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 사이사이로, 징소리가 쉬지 않고 큰 황소 울음처럼 사납고도 구슬프게 들려 왔기 때문에 잠시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어쩌면 바람 소리라도 같은 그 징소리는 바로 뒤란의 아카시아 숲에서 가깝게 들린 것 같다가도 다시 댐 쪽으로 아슴푸레 멀어져 가곤 했다.

"바람 소린지, 징소린지."

봉구는 벌떡 일어나 더듬더듬 담배를 찾아 성냥불을 붙였다. 그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몇 번인가 누웠다 앉았다 하며 담배만 피웠다. 자꾸만 꺾바퀴를 후벼 파고 들려 오는 징소리가 오목가슴 깊숙이에 가시처럼 걸린 때문이었다.

이날 밤, 팔만이도, 덕칠이도, 강촌 영감도 다 같이 방울재 안통 여기저기서 실새없이 들려 오는 징소리 때문에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징소리는 점점 더 가깝게, 그리고 때로는 상여 소리처럼 슬프게 들렸는데, 그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한 방울재 사람들은, 그게 어쩌면 그들한테 쫓겨난 칠복이의 우는 소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을 다 같이 했다. 그 생각과 함께 징소리가 더욱 무서워졌으며 아침을 맞기조차 두려웠다.

- 문순태, 징소리 -

언어 영역



[48~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럽'이라는 개념은 유럽인들에게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유럽은 본래 동질성을 찾기 어려워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실체였다. 중세에 유럽인들은 기독교 세계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더 세속적인 관념들은 교회가 무너지고 나서야 생겼다.

㉠

아닌 것은?

유럽인은 유럽을 비(?)유럽, 곧 '다른 세계'를 통해 정의하여 왔다. 유럽보다는 '유럽 이외의 사람들'이 언제나 중요한 문제였으며, 이들은 유럽인과 기원이 같지 않기 때문에 무능할 뿐 아니라 영원히 정치적인 혼란을 지속할 것이라고 보았다. 유럽인은 자신들의 기원을 그리스·로마에 두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럽 이외의 세계는 유럽의 과거를 비추어 준다고 생각하였다. 수세기 동안 유럽이 거쳐 왔던 과거가 다른 세계를 통해 유럽인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인식되었다.

않은 것은?

유럽인은 아메리카와 같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면서 선사 시대를 알게 되었다. 아메리카 등은 그리스·로마 시대(고대)에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성서에도 기록되지 않았고, 상상으로만 그려지던 지역이었다. 탐험가들이 석기만을 사용하는 민족들이 아메리카나 태평양 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자, 퇴보론(???)이라는 관념이 주목받게 되었다. 이것은 유럽이라는 세계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전의 문명 단계에서 더 낮은 단계로 퇴보하였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로크(J. Locke, 1632~1704)가 전세계에 석기 시대가 존재하였고, 아직도 석기를 쓰는 사람들은 퇴보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잔존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자 로크의 의견을 따르게 되었다.

없는 것은?

유럽의 개념과 관련하여 이집트에 대한 유럽인의 생각을 살펴보면 흥미롭다. 유럽인은 이집트를 유럽이 아닌 다른 세계에 귀속시켰다. 그들은 이집트가 문명의 원천이라고는 생각하였지만, 이집트가 지닌 지식은 쓸모 없는 것으로 여겼다. 이런 이집트에 그리스 사람들이 들어가 생명력을 불어넣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근대에 들어서 유럽이 이집트를 지배한 것을 두고 유럽인들은 유럽의 우수성이 증명된 것으로 보았다. 유럽인들은 '진부한 유럽 밖의 세계'나 이류(?)를 가리키는 데 '동양'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유럽인의 우수성을 드러내려 하였다. 유럽의 역동성과 비교하면, 동양은 본질적으로 정체된 구조였으며, 열등하고, 감정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유럽인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냄으로써 '유럽'을 창조하였다. 유럽은 언제나 사상이나 전쟁을 통해 도전 받은 실체지만, ㉡

유럽이라는 개념은 '다른 세계'라는 거울로 자신을 비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여기에서 유럽은 다른 세계를

언어영역

지배하는 정당성을 찾았다. 유럽에 관한 진보와 우월성의 이미지는 19 세기에 절정에 달하였다.

이같이 자기중심적 역사가 바로 오늘날 유럽의 정체(??)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유럽인은 외부 세계를 열등한 세계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유럽인들은 다른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권리가 아니라 의무로 여겼다. 그 명분은 문명 사회의 질서 잡힌 이성을 미개인들에게 부여하여, 발전의 가능성을 준다는 것이었다.

하여 가장 적절하게 표현된 것은?

낸 것은?

원자들이 다양한 조합으로 결합하여 이토록 방대하고 다양한 물질 세계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최소 단위에 대한 개념은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

고대 그리스인들이 세웠던 물질관은 여전히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세기 과학자들은 물질의 최소 단위로 생각되는 미세한 요소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그리스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자'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이것이 물질의 최소 단위는 아니었다. 1930 년대에 이르러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의 주변을 전자들이 돌고 있는 구조로 된 복합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후로 한동안 물리학자들은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가 바로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최소 단위, 즉 원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1968년에 스탠포드 선형 가속기 센터의 실험에 의해 양성자와 중성자조차도 물질의 최소 단위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다운 쿼크'와 '업 쿼크'라고 명명된 두 가지 입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후 물리학자들은 더욱 강력한 기구를 발명하여 여러 개의 새로운 입자들을 찾아냈다.

도대체 자연계에는 왜 이렇게 여러 종류의 입자들이 있는 것일까? 각각의 입자들이 갖고 있는 값(질량)들 사이에는 외관상 아무런 규칙성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다가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고려하면 의문은 더 커진다. 입자들 사이에는 중력(??), 전자기력(??E?), 강력(, ?), 약력(??)*이라는 네 가지 힘이 작용하는데, 이들은 그 크기와 성질이 모두 다르다. 도대체 왜 이런 네 종류의 힘이 존재하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들을 해결할 만한 이론의 후보로 '초끈이론(superstring theory)'을 들 수 있다. 초끈이론의 기본 개념은 모든 물질이 진동하는 ㉡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초끈이론에 의하면 만물의 최소 단위인 끈이 진동하는 방식에 따라 겉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달라진다. 따라서 기존의 물리학자들이 발견해 낸 입자들은 모두 '진동하는 끈의 여러 가지 얼굴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네 종류의 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무거운 입자는 그 입자를 이루는 끈이 격렬하게 진동하고 있으며, 가벼운 입자들은 끈이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진동한다는 것이다.

이전의 물리학자들은 물질의 최소 단위로 생각되는 여러 가지 입자들이 저마다 고유한 형태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초끈이론은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엎었다. 물질의 최소 단위인 끈들은 모두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수없이 많은 끈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동하고 있는 이 우주는, 하나의 웅장한 '우주 교향곡'이 연주되고 있는 거대한 무대인 셈이다.

강력 :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들을 강하게 결합시켜 주는 힘.

약력 : 방사능 붕괴를 일으키는 힘.

먼 것은?

[52~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대 그리스인들은 모든 물질이 '원자'라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미세한 구성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몇 종류의

언어영역

청산에서 백골을 보면 깊이 파고 묻어 주며 수절과부 보쌈 하면 쫓아가서 빼어놓기, 어진 사람 모함하면 대신 나서 발명하고 애잔한 놈 횡액 보면 달려들어 구원하기, 길 잃은 어린아이 저의 부모를 찾아 주고 주막에서 병든 사람 본가에 기별하기, 계집불살(v???)^{*} 방장부절(???)^{*}

남의 일만 하느라고 돈 한 푼도 못 버니 놀보 오죽 미워하랴.
하루는 놀보가 흥보를 불러 "흥보야 네 듣거라. 사람이라 하는 것이 믿는 데가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된다. 너도 나이 장성하여 계집 자식이 있는 몸이 사람 생애 어려운 줄은 조금도 모르고서 나 하나만 바라보고 유익유식(???)^{*}하는 거동을 보기 싫어 못하겠다. 부모의 세간살이 아무리 많아도 장손의 차지인데 하물며 이 세간은 나 혼자 장만했으니 네게는 부당(부당)이라. 네 처자를 데리고서 속거천리(속거천리)가 떠나거라. 만일 지체하여서는 살육지환(살육지환)이 날 것이니 어서 급히 나가거라."

가련한 흥보 신세 지성으로 비는 말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형님 전에 비나이다. 형제는 일신이라 한 조각을 베면 둘 다 병신 될 것이니 외어기모(외어기모)를 어이 하리. 동생 신세 고사하고 젊은 아내 어린 자식 뉘 집에 의탁하여 무엇 먹여 살리리까. 장공예(장공예)는 어떤 사람이고 하니 구세(구세) 동거하였는데 아우 하나 있는 것을 나가라 하나이가. 척령(척령)은 짐승이나 금란지의(금란지의)를 알았고 상체(상체)는 꽃이로되 담락지정(담락지정)을 품었으니 형님 어찌 모르시오. 오륜지를 생각하여 십분 통촉하옵소서."

놀보가 분이 상투 끝까지 치밀어 그런 야단이 없구나.

"아버지 계실 적에 나는 생판 일만 시키고서 작은아들이 사랑옵다 글공부만 시키더니 너 매우 유식하다. 당 태종은 성주(성주)로되 천하를 다투어서 그 동생을 죽였으며, 조비(조비)는 영웅이나 재주를 시기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나 같은 초야 농부가 우애지정을 알겠느냐."

구박 출문(구박 출문) 쫓아내니 가련하다 흥보 신세 개구(개구) 다시 못 하고서 빈손으로 쫓겨나니 광대한 이 천지에 무가객(무가객)이 되었구나.

불쌍한 흥보 닻이 부자의 머느리로 먼 길 걸어 보았겠나. 어린 자식 업고 안고 울며불며 따라갈 제 아무리 시장하나 밥 줄 사람 뉘 있으며, 밤이 점점 깊어 간들 잠잘 집이 어디 있다. 저물도록 뺨뺨이 굵고 풀밭에서 자고 나니 죽을 밖에 수가 없어 염치가 차차 없어 가네. 이곳 저곳 빌어먹어 한두 달이 지나가니 발바닥이 단단하여 부르틀 법 아예 없고, 낮가죽이 두꺼워서 부끄러움 하나 없네. 일년 이년 넘어가니 빌어먹기 수가 터져 흥보는 읍내에 가면 객사(객사)에나 사정(사정)에나 좌기(좌기)를 높이 하고, 외촌(외촌)을 갈 양이면 물방아집이든지 당산(당산) 정자 밑에든지 사처를 정하고서 어린것을 옆에 놓고, 긴 담뱃대 붙여 물고 솔솔을 매든지, 포아리를 엮든지 냇가나 방죽이나 가까우면 낚시질을 앉아 할 제, 흥보의 마누라는 어린것을 등에 붙여 새끼로 꼭 동이고 바가지엔 밥을 빌고 호박잎에 반찬 얻어 허위허위 찾아오면, 염치없는 흥보 소견에 가장(가장) 태를 하느라고 가속(가속)이 늦게 왔다고 쫓았던 지팡이로 매질도 하여 보고, 입에 맞는 반찬 없다 앉았던 물방아집에 불도 놓아 보려 하고, 별 수를 매양 부려 하루는 이 식구가 양달쪽에 늘어앉아

영으로 옳지

않은 것은?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흥보의 마음씨는 저의 형과 아주 달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에게 존경하며 이웃간에 화목하고 친구에게 신의 있어, 굶어서 죽게 된 사람에게 먹던 밥을 털어 주고 얼어서 병든 사람 입었던 옷 벗어주기, 늙은이의 짙어진 짐 자청하여 져다 주고 장마 때 큰 물가에 샴 안 받고 건네주기, 남의 집에 불이 나면 세간살이 지켜 주고 길에 보물이 빠졌으면 지켜 섰다 입자 주기,

언어영역

헌 옷에 이 잡으며 흥보가 하는 말이 "우리 신세 이리 되어 이왕 빌어먹을
테면 전곡이 많은 데로 가 볼 밖에 수 없으니 포구(?|) 도방(ㄱ?)
찾아가세."

- 신재효, 박타령 -

* 계집불살 : 경칩에 동면에서 깨어난 벌레를 죽이지 않음.

* 방장부절 : 자라는 초목을 꺾지 않음.

* 유의유식 : 하는 일 없이 놀면서 입고 먹음.

* 외어기모 : 외부의 수모를 막음.

* 척령 : 할미새. 형제 사이에 어려운 일을 서로 돕는다 함.

않은 것은?

* 좌기 : 관아의 으뜸 벼슬아치가 출근하여 일을 시작함.

56.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7. 놀보가 [B]와 같이 말한 이유로 보기

어려운 것은?

아닌 것은?

않은 것은?

언어 영역

* 확인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 (표기) 했는지 확인한 후 답안지를 제출하시오 .